



완주자봉센터, 어르신 위한 추석음식 나눔 실천

사)완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김영석)는 22일 자원봉사센터 조리실에서 완주군 재가 어르신 500여 세대를 위한 추석음식을 만들어 소중한 나눔을 실천했다.

참! 좋은 사람의 발자 푸드봉사단 20여명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에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완주군 지역 재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어 주고자 사랑으로 버무린 양념 불고기를 명절 떡(송편)과 함께 정성껏 전달하며 의미있는 하루를 보냈다.

올 해 사랑의 발자 운영은 총 9회차로 이 번에는 자원봉사자들과 수혜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도록 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으로써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자원봉사센터 김영석 이사장은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고 싶으며, 풍성한진 않더라도 서로에게 따스한 마음을 전할 줄 아는 아름다운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남원경찰, 명절 대비 선제적 특별방범활동

남원경찰서는 오는 10월 4일까지 추석 명절을 대비해 각종 범죄와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치안활동을 단계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1단계로 21일부터 27일까지 금융기관, 금은방, 편의점 등 범죄취약장소에 대해 범죄예방진단과 각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정밀 방범진단을 실시하고, 2단계는 1단계 기간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취약지 위주의 순찰을 강화 할 예정이다.

강태호 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명절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치안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 비접촉 음주운전 단속 강화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최근 코로나 19로 약화된 음주운전 인식 개선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21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은 코로나 19 감염을 우려해 숨을 불어넣는 기존 음주 감지기 방식이 아닌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하고 이 기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와 취약 시간대를 분석해 상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주 3회 이상 주·야간시간대를 바꿀가며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병무청장, 사회복지요원 복무기관 방문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22일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복무관리의 일환으로 전북 부안군에 소재한 바다의 향기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영희 병무청장은 이 자리에서 복무기관의 장에게 사회복지요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무 할 수 있는 복무환경 조성을 부탁했다. 또한, 사회복지요원들에게는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면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희 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무현장을 찾아 현장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김제 공덕면, 의용소방대 코로나19 방역 봉사

김제시 공덕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천만영)은 22일 남여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및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자체 방역을 실시했다.

이날 방역작업은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이 많은 공덕면 남·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최근 인근 지역인 익산시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세심하게 방역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추석 명절에 대비해 주민 밀집지역, 취약계층 거주지, 각종 밀폐공간 등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장소는 철저히 방역하고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웃을 위한 연이은 온정의 손길들

남원시, 수해주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물품 기탁 지역사회 줄 이어

남원시 지역에서 수해피해 주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금 내역을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춘성) 800만원, 광원전력 500만원과 직원 모금액 800여만원, 장한종합건설(대표 소재철), 남원산림조합(조합장 윤영창) 각 1,000만원, 남원·북포항라이온스클럽 600만원, 남원여객 500만원, 남원의료원상 304만원, 자율방범연합회, 의용소방대연합회 각 300만원, 남원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200만원, 전주신



마음이 우리지역 수재민들에게 따뜻한 힘이 될 것이다”며, 큰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광고회 150만원, 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 100만원 등 많은 곳에서 성금을 기탁했다.

또한 인천청천동 호남향우회가 백미, 생수, 마스크(200만원 상당)를 기탁하는 등 22일 현재 성금은 101건에 7억3천7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보내주신 귀한

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과제교육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22일 센터에서 생활개선회 임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과제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진안 로컬푸드의 박일남 이사를 초빙해 ‘로컬푸드의 이해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천연염색제를 이용하여 마스크를 만드는 체험을 하는 등 회원들 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이끌었다.

전춘성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긴 장마로 인해 어려워진 일상에 대해 힘내시길 바라며, 지혜를 모아 따뜻하게 지내면서 이겨나가기를 바란다”며 “우리군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활동하는 생



활개선회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순창경찰,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추석 만들기 주력

순창경찰서(서장 정재봉) 여성청소년계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성범죄 예방 및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대형마트,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대상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일명 ‘불법촬영’)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촬영된 동영상·사진 등이 음란물 형태로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될 경우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방이 최우선이며, 이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보유 중인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 여자경찰관이 다중이용시설 내 여자화장실 내부를 점검하였으며 여성안심벨 작동 상태도 함께 점검했다.

또한, 명절 연휴와 더불어 가을 행락철을 맞이해 강천산 군립공원 등 관광지, 공원 등 공중화장실 대상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 및 성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재봉 경찰서장은 “최근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명절 등 외부인 유입이 많은 계절인 만큼 불법촬영범죄 없는 안전한 순창이 될 수 있도록 경찰의 주기적인 점검과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군산경찰, 추석맞이 탈북민을 위한 사랑나눔

군산경찰서장(총경 최홍범)은 22일 오전 10시 서장실에서 보안자문협의회(회장 김동일) 협업으로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탈북민들을 위한 사랑나눔 활동으로 위문금과 선물세트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후두암으로 투병중인 K씨 등 탈북민 3명에게 위문금과 군산지역 탈북민 106세대에 대해 선물세트를 지원하였다. 보안자문협의회에서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떠난 외로움 등을 달래주기 위해 탈북민을 초청해 큰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집합행사 대신 각 탈북민 가정에 신변보호관들이 선물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경찰, ‘플래시윙커’ 설치로 야간운전 안전 확보

군산경찰서(서장 최홍범) 교통관리계는 22일 관내 자동차 전용도로 상 호덕교차로와 고봉교차로 진입 램프 구간에 ‘플래시윙커’ 시설을 설치해 야간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나섰다.

‘플래시윙커’는 빨간색 플래쉬와 파랑색 플래쉬가 번갈아 깜빡거리게 하는 교통시설물의 일종으로 광도가 뛰어나며 특히 야간 시인성이 좋아 군산경찰서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 램프구간에 이를 설치해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 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상전면, 추석맞이 도로변 풀베기 추진

진안군 상전면(면장 안정무)은 22일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내방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관내 모든 도로변 구간에 대한 풀베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풀베기는 도로변 17.3km를 5개 작업구간으로 나눠서 실시했으며, 도로변 잡길과 비탈면의 풀베기 및 너름 제거 등을 하는 등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와 인력을 총동원했다.

상전면은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늘어진 나뭇가지 등을 말끔하게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은 물론 운전자 시야 확보를 통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안전운행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